

PFC 어린이철학의 형성과 전개

도덕과교육과 20241303 정재희

이번 실습을 나가면서 1학년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다. 1학년 학생들은 도덕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몸소 깨닫게 되었다. 실제로 학생들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서로 싸우거나 우는 모습도 보게 되었다. 교사는 이러한 일상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윤리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 이 과정 속에서 어린이 철학을 접목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립먼의 어린이 철학은 교과서 속 지식으로만 학습하는 것이 아닌 교실을 탐구공동체로 보는 과정이다. 초등 1학년은 도덕 교과목을 배우지 않는 학년이지만 어느 학년보다도 철학적 사고가 필요한 학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철학을 마주하고 올바른 윤리관을 배우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학생들은 국어 수업으로 통해 사과하는 방법, 고마움을 전하는 방법을 배운다. 상대방을 배려해야 함을 도덕 과목이 아닌 다른 수업 시간 활동으로 접하게 되는 것이다. 친구에게 실수를 했을 때는 “미안해,” 웃어른에게 감사함을 표할 때는 “고맙습니다”와 같은 표현으로 간접적인 도덕 수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주입식 학습으로 발화를 익히는 것은 철학 수업이라고 할 수 없다. 왜 사과를 해야하는지, 왜 감사를 표해야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감정과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고 왜 그러한 감정이 드는지 분석해야 한다. 서로의 감정 공유를 토대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학급에서 함께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다. 두명의 싸움에서 시작된 윤리에 대한 의문은 학급의 규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공동체 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함을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체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추상적인 관념인 철학을 깨닫게 된다.

예로, 친구와 복도에서 뛰다가 부딪힌 상황에서 학생은 의도치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아파하는 모습에 사과를 해야 한다. 고통을 느낀 상대방을 안쓰러워하고 배려하며 사과하는 것이다. 추후에는 예방을 위해 복도에서 뛰면 안된다는 질서를 배우고 학급 규칙으로 제정하여 모두가 규칙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한다. 립먼의 어린이 철학은 실제 학교 환경에서 위와 같은 방향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간의 마찰을 단순히 해결해야할 문제 상황으로만 보지 않고 학생들에게 철학을 알려줄 기회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교사가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은 무궁무진해진다. 일상 속에서 접하는 규율이 후에 도덕교과를 배우게 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